

장성군 '농업인 복지' 올해 7억5000만원 투입

자녀 학자금 지원·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출산 농업인 농가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시책 펴

장성군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올 한해 7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들의 집을 덜어주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와 손자녀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보육교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15개소의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영농활동과 가사노동 병행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도 눈에 띈다.

군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센터에 고충상담 및 문화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중 28%를 지원하고, 연금보험료 또한 부담액의 50% 범위 내에

서 보조하고 있다.

농업인 복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정과(061-390-738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강진군 최초 경로당 수성당 신년 하례회 강진원 군수 등 참석

강진 수성당(壽星堂)의 155번째 신년 하례회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날 하례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사진>

수성당은 군 최초 경로당으로, 지난 1885년 건립돼 동학농민혁명 당시 소실됐다. 지금의 수성당은 1936년 재건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도 강진의 어르신들이 고서를 강의하거나 함께 토론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성당은 회원 28명이며 평균나이 80세 이상으로, 지역의 원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청정해역 강진만 지주식 돌김채취 한창

6일 오전 천혜의 청정해역인 강진만 서쪽의 신전면 사초리 바다에서는 임춘추씨가 기습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옛 방식 그대로의 지주식 돌김을 채취하는 어민들로 분주하다. 강진만 지주식 김은 현재까지 35만속이 생산돼 1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59만속을 생산해 3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r

담양 농기계 임대사업 호응

작년 2440농가 이앙기 등 3998대 사용

귀농·귀촌 바람...해마다 이용자 급증세

담양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해마다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며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를 보완해 가며 이용 농가가 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2010년 764농가 913대를 시작으로, 2011년 919농가 1254대, 2012년 1080농가 1893대, 2013년 2440농가 3998대로 급증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55종 20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앙기, 작물이식기 등 20여대를 추가 확보하고 임대사업장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실습포장 625㎡를 설치해 귀농·귀촌한 농업인과 농기계 사용 경험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동법 등을 교육시켜 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고 있다.

이달 내로 농기계 세척실도 완공했다. 특히 늦은 오후와 새벽시간에 농사일을 많이 임대시간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장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농업인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새 얼굴

"친환경쌀 생산라인 구축 최선"

박안수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장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원활한 농업자금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안수(55) 농협중앙회 장흥군 지부장은 "관내 6개 지역농협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친환경쌀 전문 생산라인 구축과 무인헬기 사업' 등 지자체 협력사업 분야를 적극 추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흥 대덕 출신인 박 지부장은 농협대를 졸업한 후 지난 80년에 장흥 안양농협 근무를 시작으로 중앙회 소속인 구례교육원 교수, 전남지역본부 금융팀장, 동광주지점장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전북



순창군 인재양성 요람 옥천인재숙 "경사났네"

수료생 40명 전원 대학 합격...2년 연속 쾌거

순창군 옥천인재숙 수료생 40명 전원이 지난해 이어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옥천 인재숙은 6일 "2014학년도 대학 최종합격자 발표결과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등 수도권에 21명(53%)이 진학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옥천 인재숙은 이날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

특히 순창군 역대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둬 옥천인재숙의 성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명문 교육대 2명을 포함해 지방 국립대에도 18명이 합격해 수료생 전원(정시 16명, 수시 2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순창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학생, 행정, 학부모의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재숙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진학상당을 위해 주말을 이용, 서울출신 유명강사와 입시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해 명품 수학특강, 입시컨설팅 등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인재숙 출신 명문대생과의 멘토링, 인재숙 환경정비 사업, 주말특강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옥천인재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옥천인재숙은 2003년에 개원해 지난해 10기까지 수료생 406명을 배출했으며, 현재 180명이 이곳에 입사해 학업에 전념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리산 둘레길 방문객 '관광여권' 발급합니다

조합, 4000부 제작·배포

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맞아 이를 주관하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방문객을 위한 관광여권 4000부를 제작·배포한다. 관광여권에는 지리산권 전체 지도, 관광지 주소, 연·월간 경품 응모권 등이 포함돼 있다. 관광여권 소지자에게는 지리산권 3개도(전남·북, 경남), 7개 시·군(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

함양)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 면제·할인 혜택을 준다.

신청은 지리산 둘레보고 홈페이지(jirisan2our.com)에서 1인 3부까지 가능하며 7개 시·군 대표 관광지에 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리산권 관광여권은 온라인에서 등록신청을 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리산권 14개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월간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각 관광지에 비치된 스탬프를 찍어 응모함에 넣으면 매월 추첨을 통

해 지리산권 특산품을 비롯해 아이패드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연간이벤트는 7개 시·군에 있는 주요 관광지 중 7개 관광지 이상 또는 7개 대표축제의 스탬프를 날인받아 우편으로 응모하면 경품으로 소형 승용차가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는 영·호남의 지붕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3개도 7개 시·군이 모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내일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대회

갑오년 새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8일 오전 남원 요천 둔지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제13회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연날리기 대회 모습.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참가한 청소년들은 직접 제작한 연의 창작성 및 모양과 높이띄우기, 재주부리기, 연줄잡기 등 심사항목에 따라 기량을 겨루게 된다. <남원시 제공>

단신

전북 '사랑의 열매' 최종 모금액 48억 넘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진행한 '희망 2014 나눔캠페인' 최종 모금액이 목표액 48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6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73일간 나눔캠페인을 벌인 결과 53억3351만 8000원을 모금해 15년 연속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7억원 가량 더 늘었다. 모금액 중 현금금은 40억1293만3000원(75.2%), 물품은 13억2058만5000원(8.8%)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개인기부가 61.9%로 가장 많았고, 기업 28.5%, 법인 9.6% 등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정읍 산내면 정월 대보름한마당 행사 14일 개최

제10회 산내면 정월 대보름한마당 행사가 오는 14일 산내면 능교리 소재지 앞 옥정호변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내 산물림농약단(단장 변동선)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물림농약단원 30여명이 마을 일원을 돌면서 북을 불러오는 지신밟기와 사

물놀이를 펼치며 주민들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비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소나무와 대나무, 뽕잎 등을 이용해 만든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 태우기와 소지 쓰기, 풍등 띄우기, 추석의 쥐불놀이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갖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농업인 소득사업 자금 지원 용자

남원시는 농업인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 및 남원시로 귀농하고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다.

개인은 세대당 2000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있는 신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하반기에 개장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예정보다 늦은 올해 하반기에 개장할 전망이다.

전주시는 6일 "애초 4월부터 매주 금·토요일 이 시장 70여개 점포가 참여하는 '야(夜)시장'을 열 계획이었으나 준비 부족 등으로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겨울철은 오후 10시까지)까지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야시장 현장 조사단'이 남부시장을 방문, 준비 과정을 점검했다. 조선시대 3대 시장의 하나로 남문 밖 시장으로 불렸던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